

시선

사설

프라이м사업, 계획서 제출 후
구성원 소통이 더 중요하다

우리학교가 프라이м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 피성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재정’의 문제일 테다. 재 정 없는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 다. 프라이м사업 대형 사업에 지원하는 우리학교는 선정 될 경우 최대 3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얻어내게 된다. 학교의 주장대로 프라이м사업에의 참여가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부합한다면, 이 재원은 아주 좋은 효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재정’ 그 자체가 우리학교의 프 라임사업 참여의 제1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제1 목적은 위에서도 적시한 바, ‘프라이м사업에 참 여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프라이м사업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유력 대학들은 이 사 업 대신 CORE사업을 선택하며 사실상 프라이м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각 대학 나름의 사정이 있 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강력한 수준의 학문단위 재조 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프라이м사 업 참여과정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 다. 환언하면 이 유력대학들은 프라이м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의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프라이м사업에의 참 여를 선언한다면, 우리는 사업참여와 함께 따라오게 될 이 ‘강력한 수준의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 조조정’ 등이 우리학교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성과 일 치한다는 것을 앞으로의 실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증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경쟁 대학 간 사업계획서 유흡을 극도로 방지 하는 분위기인 프라이м사업 준비과정의 특성상, 지금까 지 대학본부 측은 우리학교 프라이м사업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성원에게 거의 비공개로 일관해왔 다. 구성원의 입장에서선 코앞으로 닥친 학문단위 재 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과연 우리학교의 청사진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장 ‘내’가 속한 조직이 학제 개편의 대상이 되는지 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형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불안은 프라이м사업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아닌 감정싸 움의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경쟁 대학인 중앙 대학교가 양 캠퍼스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각 한 번 씩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참여를 위한 소통작업을 해왔 음을 감안하면, 그간 우리학교의 전체를 위한 소통 노 력은 아쉽다고 하겠다.

사업 선정 이후, 앞으로의 진행을 통해 우리가 감행 한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우리학교의 청사진과 일치함을 증명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 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오는 31일,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대학 측이 전 구성원을 상대로 학과 개편 및 인원 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현재 양 캠퍼스 구성원이 갖고 있는 술한 의구심을 해소하 고 구성원을 설득하여 단일한 힘으로 응집시키는 것이 당장 대학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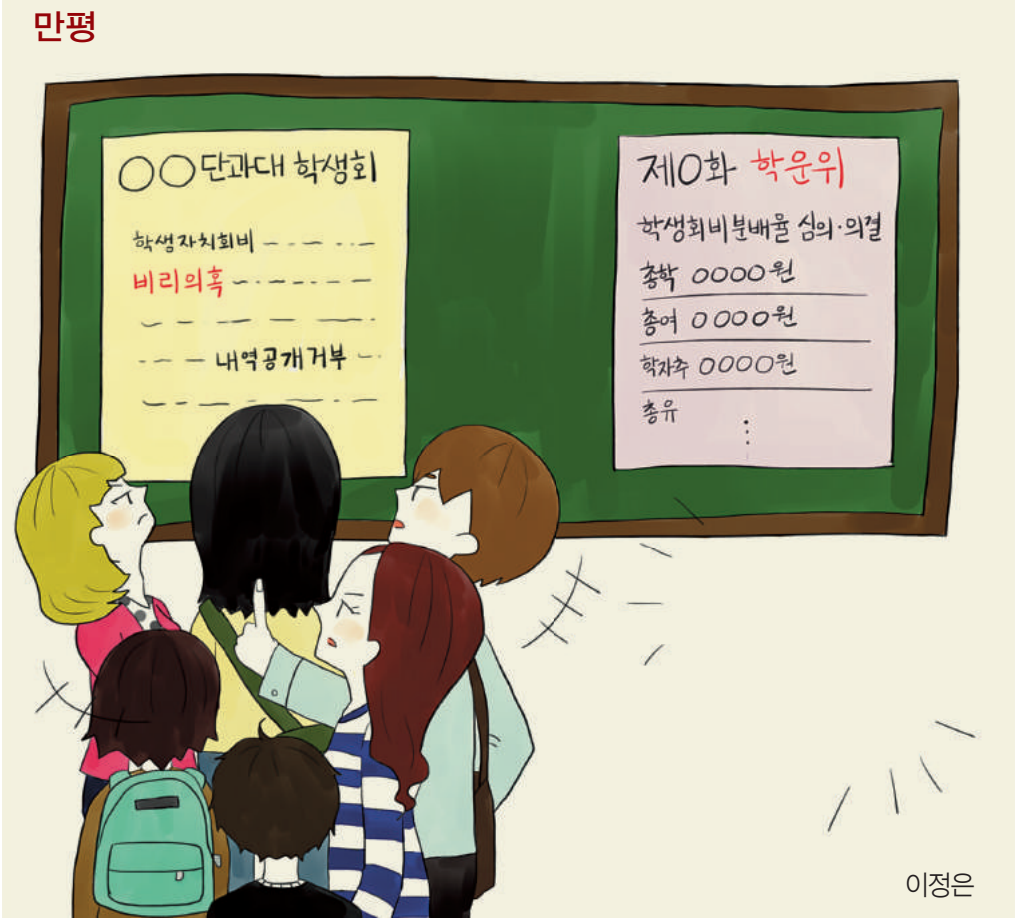
“지난해 기준 자치회비 분배
한다면 학생회 운영 어려워”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3. 14. ~ 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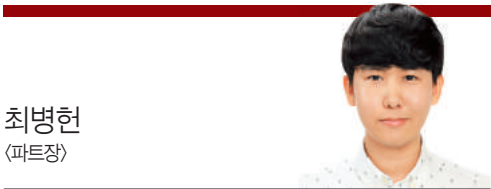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21일 오비스를 411호에서 총학생회(총학)가 주 관한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열렸다.(서울 캠프 제1차 확운위,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회비 분배액 받아들이기 어려워”/대학주보 온라인, 2016.3.23) 이 번 확운위에서 총학 측은 방증활동 보고·자치회비 사 용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한 뒤 곧바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안건을 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학 사업계 획서’와 ‘1학기 자치회비 분배율 심의’ 등이었다. 첫 번 째 안건으로 다룬 ‘사업계획서’는 ‘공약이행’과 ‘신뢰 회복’이 주안점이었다.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은 “학생자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불 때마다 학생사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학생자치회비를 통해 바라본 ‘학생자치 주인의식’
꾸준한 관심이 ‘신뢰 받는 학생자치’ 만든다



최병현
(퍼트장)

우리는 월드컵에 열광한다. 세계 무대에서 그라 운드를 누비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면 사람들은 광장을 붉은 옷으로 물들이며 축구의 매력에 한껏 빠져든다. 하지만 축구에 관한 관심은 거기까지일 뿐, 정작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자국리그인 ‘K-리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자치회비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 또한 이와 같다. 얼마 전 체육대학의 오리엔테이션 비용 논 란으로 촉발된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의혹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면, 학생자치에 대한 수많은 관 심과 함께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문제 가 일단락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학생자 치에 관한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실제로 우리 신문의 온라인 기사 조회 수와 페 이스북 페이지의 도달 범위를 분석한 결과, 문제 와 의혹이 터진 내용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는 평 상시 조회 수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의 관심이 쏟아 지지만 정작 학생자치 활동 전반을 논의하고 학 생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의결하는 여러 기구에 관한 기사의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확대운영위원 회’, ‘중앙운영위원회’같은 기구를 말이다. 학생자

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작 사건 이 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다.

우리 학교의 자치회비 납부율 역시 5년간 약 10% 가량 낮아졌다. 평상시 학생자치회에 대한 낮은 관 심도는 이미 자치회비 납부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던 셈이다. 작년 5월 총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 는 일반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여준다.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회에서 자치회비를 의미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가 71.8%로 가장 많았다. 결국 낮은 신뢰와 관심은 학생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일반 학생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혹자는 K-리 그가 인기 없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경기력과 떨어 지는 리그 수준”을 꼽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축 구 강호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이유 는 그 밑바탕에 K-리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 생자치도 마찬가지다. 총학생회 회칙 1장 5조에는 ‘우리 학교의 모든 재학생이 곧 총학생회의 회원’ 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학생회는 학생회 임원 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큰 사건 이 있을 때만 해당 화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는 상응하는 문제인식과 함께 주인 의식을 가져야한다. 즉, 학생회가 진정 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자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한 것이다.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건전한 논 의로 학생자치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

철저하게 준비된
‘이원화 기준’이 필요하다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프라이м 사업이 대학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도 4 개월가량이 흐르고 있다. ‘이원화 캠퍼스’라는 특수 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학교는 온라인에서 연일 갑 론을박이 한창이다.

관련한 수많은 댓글의 중심내용은 캠퍼스 간 갈등 이 대부분이다. 프라이м 사업이 사실상의 ‘이공계열 확 충 사업’인 만큼, 이공계열 특성과 캠퍼스의 입지를 굳히려는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정원 손실을 막고 캠퍼스 내에 이공계열 학과를 끌어오려는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캠퍼스 특성화’ 문제가 한두 해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캠퍼스 간 온도차는 크기만 하다. 때문에 항상 종래에 가서는 ‘중·장기적 해결’, ‘추후 논의’와 같은 결론이 나고 만다.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 80년대 공학계열 국 제캠 이전 직후 아펠 수 없이 중복으로 설립된 국제캠 자연과학계열 전공들, 소속 단과대학이 이전하는 가 운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학부로 독립한 무용학 부 등. 우리 학교의 이원화 역사는 혼돈 그 자체였다.

기준 없는 이원화, 대내외적 혼란 초래
더이상 ‘추후 논의’로 미룰 수 없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공계열 선호현상’과 겹쳐 극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프라이м사업의 정보디 스플레이학과 정원확대 가안에 더해, 아예 대학본부는 프라이м사업 소통회의장에서 이학계열인 정보디스플레 이학과를 ‘공학계열’로 분류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과 대학 주도의 ‘신설학과’ 역시 그러한 현상의 예시다.

이러한 기준 없는 이원화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 이름만 바뀌놓은 사실상의 ‘중복계열’들이 운영되며, 명분뿐이었던 ‘순수·응용’ 이원화 기준은 무너졌고, 게다가 캠퍼스 명칭까지 타 대학의 본·분교 명칭 방식과 같아 오해하기 쉽다. 재학생조차 양 캠퍼스 운영 방식이 이해가지 않는데, 외부 입시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학습권 보장’이나 ‘학문 간 융합’을 방패삼아 기준 없는 이원화를 운영하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행위 다. 이원화 캠퍼스에서의 ‘학습권 보장’ 형태가 이미 존재하는 ‘중복 계열의 지속’이라면, 이는 반드시 반 대쪽과의 부딪힘을 전제하는 것이다. ‘학문 간 융합’ 역시 기준 없이 분류된 현재 상태에서 각 캠퍼스가 ‘있는 재료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끼워 맞추기식’ 처사다.

‘이원화’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자. 진작 해결했어야 할 사항을 미루고 있는 와중에도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치밀하게 연구된 이원화의 기준과 철 저한 행정개편으로 향후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 지 못한다면 우리학교가 외치는 ‘미래 문명’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낙오자가 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 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